

-는 동안

~하는 동안 — 일정한 시간의 길이

한 절을 기간으로 삼아 그동안 다른 일이 일어남을 나타냅니다. -(으)면서와 달리 두 절의 주어가 달라도 됩니다.

■ 결합 방법

상황	형태	예
모든 동사	-는 동안	자다 → 자는 동안
ㄹ 받침	ㄹ 탈락	만들다 → 만드는 동안
다른 주어	가능	제가 자는 동안 동생이 왔어요
시간의 길이	명사 + 동안	세 시간 동안
기간 명사	명사 + 동안	방학 동안
시제를 붙이지 않음	어간 + 는	자는 동안(×)

■ 언제 쓰나요

동사 어간에 -는을 붙이고, '기간'을 뜻하는 명사 동안을 씁니다. ㄹ로 끝나는 어간은 ㄹ이 탈락합니다. 만들다는 만드는 동안.가 됩니다. 앞에 시제가 오지 않습니다.

-(으)면서보다 좋은 점은 주어가 자유롭다는 것입니다: 제가 요리하는 동안 동생이 청소했어요. 한 사람은 요리하고 다른 사람은 청소해도 문장이 성립합니다.

동안은 시간의 길이에 바로 붙기도 하며, 이것이 '세 시간 동안'처럼 지속 시간을 말하는 기본 방법입니다: 세 시간 동안 공부했어요. 학습자들은 여기서 까지를 쓰는 실수를 자주 하는데, 이는 지속 시간이 아니라 끝나는 시점을 나타냅니다.

■ 예문

- 1 제가 요리하는 동안 동생이 청소했어요.
- 2 기다리는 동안 커피를 마셨어요.
- 3 어제 세 시간 동안 공부했어요.
- 4 방학 동안 아르바이트를 했어요.
- 5 제가 저녁을 만드는 동안 좀 쉬세요.
- 6 한국에 있는 동안 많이 배웠어요.

■ 비교

-(으)면서

-(으)면서는 한 주어가 두 동작을 모두 해야 하지만, -는 동안은 그렇지 않습니다. 두 사람이 관련되어 있다면 이 형태만 쓸 수 있습니다.

밥을 먹으면서 봤어요. (내가 둘 다 했다) / 제가 밥을 먹는 동안 동생이 봤어요. (내가 먹는 동안 동생이 봤다)

-(으)ㄹ 때

-(으)ㄹ 때는 한 시점을 가리키고, -는 동안은 기간 전체를 포괄합니다. 지속된 일이라면 동안이 자연스럽습니다.

잘 때 (자는 시점) / 자는 동안 (밤새도록)

까지

까지는 기간이 끝나는 시점을, 동안은 지속된 시간의 길이를 나타냅니다. '세 시간 동안'처럼 지속 시간에는 항상 동안이 필요합니다.

세 시간 동안 기다렸어요. (세 시간 동안 기다렸다) / 세 시까지 기다렸어요. (세 시까지 기다렸다)

■ 주의

- ✗ 제가 저녁을 만드는 동안 쉬세요.
- 제가 저녁을 만드는 동안 쉬세요.
- ㄹ로 끝나는 어간은 관형형과 똑같이 -는 앞에서 ㄹ이 탈락합니다.
- ✗ 어제 세 시간까지 공부했어요.
- 어제 세 시간 동안 공부했어요.
- 세 시간은 시점이 아니라 시간의 길이입니다. 까지를 쓰려면 세 시처럼 시각이 필요합니다.
- ✗ 제가 잤는 동안 전화가 왔어요.
- 제가 자는 동안 전화가 왔어요.
- 는 동안은 시제를 가지지 않습니다. 과거는 마지막 동사 왔어요가 나타냅니다.